

나주시, 사람 중심 '그린 인프라' 구축한다

산림 비전 실현 위해 3개 분야 10개 유형별 시책 추진 생태계 보호·미세먼지 대비 등 지역민 삶의 질 개선

나주시가 사람중심의 산림 비전 '그린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12일 나주시는 민선 7기 사람 중심 산림 비전 실현을 위한 '그린(Green) 인프라 구축 및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5대 미션, 3대 기본 방향, 10개 유형별 그린인프라 정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린 인프라' (Green Infrastructure)는 1990년대 후반 미국과 영국 등에서 산업화 흐름에 치우친 도시 인프라를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용어로 콘크리트 구조물 위주의 그레이 인프라 (Gray Infrastructure) 일명 회색도시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원, 정원, 수로, 가로수, 광장 등 자연(natural)지역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 내부 건물, 조형물 등 준자연(semi-natural) 지역 간의 계획된 연결망을 통칭한다.

그린 인프라는 생태계 보호를 비롯한

최근 기후변화, 자연재해, 미세먼지, 도시 열섬현상 등 사회·환경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 우울증 극복, 휴양 프로그램 등 복지 분야로 영역이 확장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또 자연 친화적 녹지 공간 조성에 따른 경관 향상은 물론 지역 관광,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전략으로 각광받고 있다.

시가 국비 200억원을 투입해 금성산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국립나주숲체원'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 바람숲 길', 내년도 시민과 함께 '백만그루 나무심기' 등도 그린 인프라의 일환이다.

또 시는 '지속가능한 도시 나주를 말한다. 2020년 사람중심 산림비전 실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산림정책 ▲삶과 숨이 있는 공원 ▲운치와 멋을 더하는 조경 ▲숲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산림보호 ▲도시와 숲을 이어주는 빛가람공원녹지 등 5대 미션과 그린



나주시는 사람중심의 산림비전 '그린 인프라' 구축 사업을 펼치고 있다. 철도공원관광자원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나주 영산포 일원. <나주시 제공>

인프라의 보전·재생·조성 등 3개 분야 12개 유형별 과업을 추진한다.

특히 시는 산림공원을 중심으로 산림·농지·생태, 역사·문화, 공공·생활·네트워크, 도시대표브랜드·관광테마정원·특수녹화시설 등 각 유형에 해당되는 사업부서의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그린 인프라 구축 계획이 미세먼지, 도시열섬 등 환경문제와 방재, 공동체 활성화, 우울증과 같은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대책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린인프라 관련 신규시책 및 활성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정부 주관의 공모사업 등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나주고, 지역거점고교 역할 '톡톡' 서울대 3명 등 상위권대 다수 합격

학생·교사·주민 노력 결실

나주고등학교(정해중 교장)가 2020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서울대 3명, 한양대, 중앙대, 서강대 등 서울 상위권 대학에 다수의 합격생을 배출했다.

12일 나주고 등에 따르면 3학년 학생 3명이 서울대 수시모집에서 최종 합격한데 이어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동국대 등 서울 시내권 다수의 대학에 최종 합격했다.

이외에도 광주·전남권의 국립대와 사립대 그리고 타 지방의 대학에도 다수 학생이 수시로 합격했다.

나주고가 이번 대학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낸 데는 학생과 교사들의 노력과 나주고가 지역 명문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선 지역민들의 역할이 컸다.

나주고는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선택을 위해 국내외 유명한 저자들을 초빙한 독서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공계열 학생들에게는 광주·전남 대학과 연계한 실험 및 체험 교육에 직접 참여하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정해중 나주고 교장은 "자율형공립고교인 동시에 지역거점고교라는 막중한 책임감 속에도 학생들이 진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런 결과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고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축적된 선생님들의 교육 노하우가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련 나주시 19일 주민설명회

나주시는 19일 금남동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용역은 ▲건축자산 가치가 있는 기존 한옥 발굴 ▲건축자산 등재 ▲보존방안 강구 ▲건축자산법 특례에 의한 각종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나주 읍성권 내 한옥 건축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9월 착수해 내년 4월 완료될 예정이다.

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읍성권 전통한옥지구' (9만8224㎡) 내 건축자산 기초조사 현황을 비롯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용역 추진 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방침이다.

또 시는 이번 용역과는 별도로 '나주시 한옥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나주시 한옥마을과 읍성권 전통한옥지구 내에 국한했던 보조금 지원을 지역 전체로 확대해 한옥을 건축할 경우 보조금 45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조례가 개정되면 관내 전 지역에 한옥 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남산공원 2021년까지 재정비... '시민의 숲'으로 새롭게 탈바꿈

나주시가 시민들의 산책 코스로 손꼽히는 원도심 남산공원을 '시민의 숲'으로 탈바꿈 시킨다.

나주시는 2021년까지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남산공원 일대 재정비를 통해 문화적 요소와 숲이 공존하는 '남산 시민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주시 남내동 2-22에 위치한 남산공원(총 면적 4만7588㎡)은 지난 1976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은 생활권 공원으로 시민에게 친숙한 산책·휴식 코스와 각종 행사 장소로 애용돼왔다.

남산공원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2037호 금성관의 옛 정문(망화루)으로 전해지는 건축물과 호국영령 추모탑, 의혼비, 옛 성벽터 등 역사문화자원과 테니스, 게이트볼, 국궁장(인덕정) 등 체육시설이 입지해있다.

그동안 남산공원은 혁신도시 내 빛가람호수공원에 비견할 품격 있는 생활권 공원 조성과 체육시설 입지에 따른 부지 효율성 문제, 휴식·산책 용도에 대한 분기 약화 등 시민들의 새로운 변화 요구가 지속돼왔다.

시는 전문가 자문 및 시민 의견 수렴과 국내외 공원 조성 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



드론으로 촬영한 남산공원 일대.

해 ▲자연에 스며드는 숲 ▲주민과 함께하는 숲 ▲지역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숲을 테마로 내년부터 '남산 시민의 숲' 조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사업 기본 계획 수립에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최근 금남동 행정복지센터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성북동에서 주민의견 수렴회를 가졌다.

아울러 시는 역사문화, 체육, 복지시설의 공원 내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부

서 및 해당 단체와의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원도심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이자 문화 공원으로 남산공원의 녹지 확장 및 구조적 개선을 통해 주민 간 소통과 숨이 있는 명품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시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 수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나주시,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대상 수상

2년 연속 우수지자체 선정

나주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19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나주시는 지난 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복지행정상 시상식에서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우수지자체에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동일분야 우수상에 이어 대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사회보장급여 적정지급 우수지자체라는 영예를 안았다.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복지사업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1년간 추진한 복지전반에 대한 부분별 사업 평가 및 우수 모범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시가 대상을 수상한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부문은 사회보장급여 적정 지급 관리를 위한 통합가구 인적 정보 기간 내 처리, 개인정보 보호실태 등 6개 지표를 평가한다.

나주시는 사회보장급여 적정지급 및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복지대상자의 소득 재산과 인적 변동 사항 등을 신속, 정확하게 반영해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주 1회 변동 처리 현황 점검 및 월 2회에 걸친 업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탁월한 사후관리와 적기 행정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하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나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보장급여 적정 지급과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방치된 묘지 70%(추정)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